



IMF,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 시사

채원영 연구원

- IMF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.5%보다 0.25%p 낮은 3.25%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.
 - 2012년 하반기에는 최근 발효된 한-EU 및 한-미 FTA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소비 또한 견고한 임금 상승으로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.
 - 그러나 경제성장 전망 기초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언급함.

- 또한,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금리 유지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.
 -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계획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,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.
 - 현재 금리 수준 유지에 대해 세계 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며 내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 기조를 나타내면 물가상승률 관리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함.

-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,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.
 -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꼬리위험(tail risk)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강화를 제언하였음.
 - 또한,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영개선 및 은행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함.

(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외)